

불교 의의 인연 (하)

이운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그림 · 문병성

남편 또한 그 해 700명이 응시하여 7명이 합격한 관세사 시험에 100:1의 어려운 관문을 최고령으로 통과하였다. 사실 난 남편의 시험 합격 기도는 하지 않았다.

그 당시 남편은 안정되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시험에 통과하지 않아도 그만이라는 생각과 욕심이 많으면 하나도 이루지 못할까 염려해서였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 가족의 소망을 다 이루어주셨다.

아들의 합격 발표를 들던 날 오후, 절에 가서 감사 공양을 올리고 지장보살 원불과 호법발원금을 신청했다. 두 아이에게 일요일 법회에 가서 부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라고 하니 순순히 따라왔다. 그 후 원하는 대학에서 적성에 맞는 전공을 찾아 공부하던 큰애는 대학불교학생회에도 스스로 동참하였고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세상에 필요한 인재로 성장하고 있다. 작은 아이는 고등학교 때부터 엄마가 절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할 때 저들의 힘이 필요하다고 하면 친구까지 데려와서 도와주고 대학에 진학한 후에는 사찰 청년부법회에도 참석하는 신심 있는 불자가 되었다. 지금은 군대에 있으면서 일요일마다 군법당에 빠지지 않고 동참하여 참선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군 생활에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고 한다.

나 역시 12월 교육이 끝난 뒤에도 일요일 법회에 꾸준히 참석하여 스님의 범문을 듣고 불심을 키워나갔다. 다음 해 여름에 남편이 직장에서 오랫동안 바라던 일이 이루어졌다. 나도 하는 분야에서 인정을 받아 강의 요청도 많아지고 점점 더 바쁘게 되었다. 그러자 교만심과 게으름이 발을 뻗어 일요일 법회에 빠지는 횡수가 잦아지고 잠들기 전에 기도도 하지 않게 되었다. 일상이 바뀐다는 핑계를 대면서 나를 합리화했다. 불심으로 세상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 잣대로 세상이 만들어지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초발심으로 무장되었던 나의 불교입문기는 부처님의 무한한 가르침 속

시험을 끝내고 집에 돌아온 큰애는 얼굴에 희색이 만연해서 합격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첫째 시간에 수학문제를 푸는데 점수 배당이 큰 주관식 2문제가 풀리지 않아 고심하다가 1교시 끝나기 10분 전쯤 갑자기 풀이 과정이 환히 머리에 떠올랐다고 했다. 시간이 부족할세라 염려하면서 머리에 떠오른 풀이 과정을 일사천리로 쓰고 답을 표기하니 끝나는 벨이 울렸다고 했다.

큰애의 얘기를 듣는 순간 부처님의 가르침이 시험장에 있는 큰애에게 전해졌음을 느꼈다. 나는 집에서 기도할 때의 상태를 큰애에게 얘기해 주니 큰애도 좋아하면서 더욱 합격을 확신했다.

남편과 아들의 시험합격... 온 가족 가피 입어
 언니의 죽음은 나태했던 신심 다지게 한 계기
 수행할 수 있는 건강함과 선근공덕에 '감사'

에서 은혜만 받고 1년 정도 만에 끝났다.

1997년 늦가을, 49년의 인생을 성년처럼 정말 남들에게 베풀기만 하며 삶을 살았던 언니가 세상을 떠났다. 원래 약한 몸을 돌보지 않고 기도와 불사의 생활을 무리하게 했기에 병을 얻어 일찍 떠났다.

죽기 전에 언니는 친정어머니에게 자신의 종교는 기독교이니 49재니 하는 의식을 하지 말고 화장을 해달라고 했다. 인과가 명확한 연기법으로 볼 때 언니가 현세에서 지은 공덕으로 좋은 몸을 받을 것이라고 확신하니 언니의 죽음에 대하여 그토록 애통해 했던 감정이 조금은 누그러졌다.

장례를 치른 그 무렵 우리나라는 IMF 경제체제에 들어가고 다음해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평생직장이라고 생각했던 직장인이 거리로 내몰렸다. 남편은 내가 불교를 만났던 해에 우리 가족에게 있었던 좋은 인연으로 준비해 두었던 자격증을 가지고 사업을 하기로 하고 직장을 퇴직했다.

그 동안 절에 가는 것이 뜸했던 나는 언니의 죽음과 남편의 제2의 인생 시작을 위하여 다시 절을 찾았다. 초발심으로 돌아가 불교 서적을 사서 읽고 차 속에서도 늘 불교 방송을 켜놓고 듣는 대로 신심을 키웠다. 남편도 나하고 같이 일요일 법회에 나가고 나보다 더 많이 불교 서적을 구해다 읽곤 했다.

99년은 우리 부부가 함께 신심을 키우는 특별한 해였다. 3월에 우리 부부는 내가 처음 불교교리강좌로 인연 맺은 원찰 스님에게서 수계를 받고 '묘관'과 '원명행'이라는 불명을 받았다. 그 해 여름휴가 때 남편과 나는 송광사에서 실시하는 여름 수련회에 동참하였다. 나는 정진반, 남편은 인욕반에서 4박 5일의 짧은 출가로 큰 깨달음의 시간을 보내면서 정말 색다른 체험을 할 수 있었다. 태어나서 말을 하지 않고 지내온 가장 긴 시간으로 우리가 말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죄업을 짓고 시간을 낭비했는지 알 수 있었다. 또한 묵언을 하니 나 자신 속에 들어가 자신을 관조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수련회에 참석하여 스님들의 수행생활을 짧은 시간이나마 체험해 보면서 나의 나태한 수행 생활에 스스로 체책을 가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수행 생활에 회의를 생기고 게으름이 나면 사찰에서 행하는 수련회에 참석하여 자신을 돌아보고 모든 재가 불자들에게 권하고 싶다. 그리고 그 해, 부처님께서 탄생하신 인도 성지 순례도 하였다.

10년의 불법인연동안 나는 좋은 스승을 만나는 복을 누릴 수 있었다. 내가 불교와 인연이 닿을 수 있도록 내가 사는 동네에 포교당을 열어주셨던 도포안사 송암 스님과, '어떤 사람이 있어 눈동자 밑에 앉아 마음을 청정히 하고 싶으면 그 사람이 스님이고 그 곳이 법당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정토회 불문 스님, 허박한 경전강의로 부처님의 사상을 깊이 있게 공부하고자 발심해 주신 금강선원 해거 스님, 그리고 서울불교전문강원에서 지금 <서장>을 강의하시는 중앙승가대 총장 종법 스님도 <불교를 알기 쉽게>라는 책을 통하여 6년 전에 이미 만났던 스승이다.

나는 40대 초에 불교를 만날 수 있었던 것을 내 인생의 큰 행운으로 여기고 있다. 더 일찍 만났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있지만 수행할 수 있는 건강이 있을 때 인연이 찾아온 것은 친정 어머니의 '관세음보살' 염불공덕과 그나마 전생에 닦아놓은 선근공덕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 지극히 많으면 어느 세월에 깨지랴! (골)

신행수기 일년내내 받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가슴속에만 폭풍 담아두었던 감동깊은 신행체험들을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시면, 연중 접수한 신행수기 가운데 우수한 소정의 고료를 드리고 신문에 연재하며, 연말에 최종 심사를 거쳐 시상합니다.

- 주제: 신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고난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A4용지 4장)
- 접수처: (110-030) 서울시 중로구 청운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2004-8251
- 인터넷 접수: thatiswhy@buddhapia.com

김문기 박사의 통증킬러 수정기공요법

의학의 본고장 독일인들을 경이시린 차세대 치료법. 진통제, 물리치료, 주사, 침, 한약, 비방, 교정법이 모두 필요가 없는 환상적인 기공요법 (S.T.T)

수정기공요법을 알면 귀하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특징

1. 기공수련도 없고, 배움이 어렵지 않습니다.
2. 힘이 들지 않습니다.
3.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4. 경비가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5. 즉석에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6. 기구나 계료가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7. 사술이 아닌 서양의학과 동양기공의 만남으로 환상적인 자연 그대로를 연출하는 요법.

시술 대상

두통, 경항통, 구안와사, 안검하수, 목 디스크, 오십견(부위별), 테니스엘보, 늑간신경통, 복통, 요통(부위별), 꼬리뼈교정, 요두증, 사경증, 치아교정, 유방교정, 허리디스크, 좌골신경통, 생리통, 퇴행성관절염, 족관절염, 족저통, 발가락변형, 중풍, 뇌성마비후유증, 전신장애 등등 수술을 제외한 전신의 모든 통증과 신경장애에 탁월한 효과 입증.

비엔나 종합병원에서 임상결과 확실한 효과를 입증하는 인증서 획득

- 교재주문: 수정기공코리닉 (일금 30,000원) ● 온라인 번호: 농협 162-02-025918 (예금주: 김문기)
- 속성강의 접수: 1개월 과정 (매월 첫째 주 시작 단 4일에 모든 과정을 필합, 선착순 8명)
- 참고: 홈페이지 SOOJUNG99.PE.KR 또는 수정기공코리닉.COM ● 장소: 수원 정대전철역 앞 전화 031)293-0806. 296-7806

사암침술과 맥을 알면 불치병은 없다

국내 어느곳에서도 배울수 없는 내용과 비법을 4개월만 배우면 초보자도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때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속성비결!! 핵심지도!!

사암침술 강좌

- ▶ 과정: ● 기초과정: 2개월 ● 고급과정: 2개월
- 맥진반 ● 사암침술반 ● 즉효요법반
- ▶ 내용: 12경락과 경근, 사암도인침술법, 장부의 허실증 판단, 황제내경맥진법, 맥조절방법, 오행처방법, 침술즉효요법(一鍼法), 비교정법, 실습 위주 강좌
- ▶ 개강: 2005. 7. 4 월 · 화반 (주 · 야간 : 4개월 완성)
 * 침술사 자격증을 교부합니다.

매화역수 강좌

간단한 수리학(1~9)만으로 운명을 판단하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쉽고 간단하고 재미나며, 명리수준을 최고위 과정까지 넘어 드리는 국내유일의 강좌로 년운과 월운은 물론 일운까지 정확하게 적중시키는 최고의 학문입니다. ▶ 개강: 매주 주말반 수시접수

정통명리강좌 정통풍수강좌

사 암 침 술 학 회

· 서울 · 종로 3가 지하철 12번 출구 옆 (화양빌딩 402호)
 문의 : 02)2267-9136. 011-307-2975

간(肝)의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응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다슬기와 구슬담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감대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더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더린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한다.

☐ 다슬기 기름: 다슬기 15kg을 황아리에 넣고 황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완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 기름이 나오면 황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한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황겨가 더 타들어가기까지 꼬박 8~9일 걸린다. 환원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은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훈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 : (055) 963-9583 · 상담문의 : (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명당을 만들어 주면 영이 바뀝니다 명당목욕방

본인, 가정집, 점포, 사무실 처방을 해보십시오. **영이 바뀌면 좋은 운으로 바뀝니다.** 새로운 운으로 바뀐다면 계수없는 일들과 불화와 액운이 사라지고 새로운 일의 열림과 새로운 운은, 명에, 재물이 옵니다.

이무리 할려구 노력해도 안되시면 집터나 공장터나 조상 묘지터 불행해 보십시오. **영이 살아나면서 불화와 우환이 사라지고 하시는 일들이 잘되며 관운, 명예, 사업, 재물이 옵니다.**

이것이 처방이다 **명당목욕방 051) 865-9933**

전도제 49제와 결별인 처방법 전화주시면 안내 책자를 보내드립니다. 처방전용 명당목욕방은 각 시찰, 암거, 철학관에만 있습니다.

혹영여리 특영여리 황금영여리 옥기떡인 특이틀여와 황금운으로 변합니다.